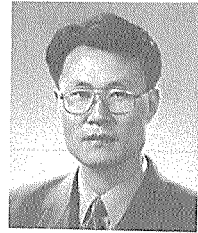


'96 전자산업 수급현황



조 규 재
조사부 대리

요 약

○ '96 전자산업 수급현황

| 구 분 | '95 | '96 | 증감율(%) |
|-------------|---------|---------|--------|
| 생 산 (억 원) | 491,158 | 493,387 | 0.5 |
| 수 입 (백 만 불) | 25,072 | 27,564 | 9.9 |
| 수 출 (백 만 불) | 43,592 | 41,223 | △5.4 |
| 시 판 (억 원) | 102,694 | 105,744 | 3.0 |

세계 교역 증가율 둔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국내경기 위축으로 전자산업 경기가 부진하여 지난 '82년 이래 처음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였다.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의 국내수요 증가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성장세로 산업용기기는 수출 및 시판 모두 견조한 신장율을 보였다.

보급을 포화화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 지연으로 가정용기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트제품의 경기 부진으로 큰폭의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일반부품은 LCD, 브라운관 및 소형모터 등의 수출증가로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 유지, 그러나 세트제품의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국내시판은 '96년 대비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 '96 전자산업 수급 현황

1. 총괄

| 구분 | | | '95 | 증감율 | '96 | 증감율 |
|-------|----|-----|---------|------|---------|-------|
| 전자산업 | 생산 | 억원 | 491,158 | 29.7 | 493,387 | 0.5 |
| | 수입 | 백만불 | 25,072 | 34.4 | 27,564 | 9.9 |
| | 수출 | 백만불 | 43,592 | 40.9 | 41,223 | △5.4 |
| | 로칼 | 백만불 | 4,913 | 17.6 | 5,208 | 6.0 |
| | 시판 | 억원 | 102,694 | 12.3 | 105,744 | 3.0 |
| 산업용기기 | 생산 | 억원 | 100,362 | 26.2 | 117,084 | 16.7 |
| | 수입 | 백만불 | 10,213 | 31.4 | 10,883 | 6.6 |
| | 수출 | 백만불 | 7,666 | 32.1 | 8,400 | 9.6 |
| | 시판 | 억원 | 35,923 | 15.7 | 42,626 | 18.7 |
| 가정용기기 | 생산 | 억원 | 106,968 | 5.4 | 109,892 | 2.7 |
| | 수입 | 백만불 | 1,621 | 32.8 | 1,659 | 2.3 |
| | 수출 | 백만불 | 7,861 | 7.4 | 7,836 | △0.3 |
| | 시판 | 억원 | 41,938 | 3.1 | 39,864 | △4.9 |
| 반도체 | 생산 | 억원 | 191,216 | 60.8 | 160,378 | △16.1 |
| | 수입 | 백만불 | 9,077 | 40.4 | 10,544 | 16.2 |
| | 수출 | 백만불 | 22,115 | 70.3 | 17,842 | △19.3 |
| | 로칼 | 백만불 | 1,578 | 26.2 | 1,610 | 2.0 |
| | 시판 | 억원 | 7,496 | 68.3 | 7,640 | 1.9 |
| 일반부품 | 생산 | 억원 | 92,612 | 17.7 | 106,033 | 14.5 |
| | 수입 | 백만불 | 4,161 | 30.1 | 4,478 | 7.6 |
| | 수출 | 백만불 | 5,950 | 22.9 | 7,145 | 20.1 |
| | 로칼 | 백만불 | 3,335 | 13.9 | 3,598 | 7.9 |
| | 시판 | 억원 | 17,337 | 13.9 | 15,614 | △9.9 |

'96년도 전자산업은 세계교역 증가율 둔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5.4% 마이너스 증가에 그쳤고 국내시판 또한 3.0%의 저조한 성장에 그쳐 생산은 전년과 비슷한 49조3천387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산업용기기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리고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의 국내판매가 호조를 보여 시판은 전년보다 18.7% 증가한 4조2천6백억

원의 건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84억불을 나타내 생산 또한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의 건조한 성장율을 보였다.

가정용기기는 C-TV 및 백색가전제품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VCR, 음향기기의 수출이 저조함을 보여 가정용기기 전체수출은 전년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며 국내시판 또는 VCR, 음향기기,

냉장고, MWO 등의 판매 저조로 4.9%의 감소를 보여 생산은 10조9천9백억원으로 전년대비 2.7%의 저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반도체는 급년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19.3%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으며 국내시판 또한 전년대비 1.9% 성장에 그친 7천6백억원으로 나타나 반도체의 생산은 전년대비 16.1%의 큰폭 감소세를 보여 16조3백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부품은 브라운관 및 LCD의 수출 호조로 수출은 전년대비 20.1%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국내시판은 자기헤드, 소형모터 등이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밖의 부품 또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 전년대비 9.9%의 큰폭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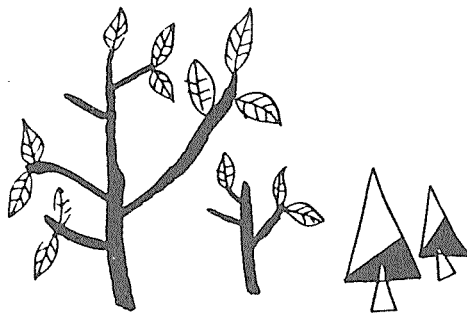
따라서 생산은 10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전자제품의 수입은 산업용기기가 6.6%, 가정용기기가 2.3%, 반도체 16.2%, 일반부품이 7.6%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9.9%의 수입증가율을 보여 '95년 한해의 수입증가율 34.4%에 크게 못미치는 증가율로 안정세를 보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수입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내수경기 위축 및 세트제품의 수출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이 '96년도 우리 전자산업 경기는 '82년 이래 처음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하고는 '97년도에도 크게 호전될 전망이 없어 신시장 개척, 고품질의 제품 개발 등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산업용기기

| 구 분 | 생산(억원) | | 수출(백만불) | | 시판(억원) | |
|-------------|---------|-------|---------|-------|--------|-------|
|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 산업용기기 | 117,084 | 16.7 | 8,400 | 9.6 | 42,626 | 18.7 |
| 유선전화기 | 4,232 | △5.4 | 173 | △13.4 | 2,407 | △0.4 |
| 교환기 | 6,610 | 29.5 | 89 | 19.6 | 5,876 | 24.7 |
| F A X | 4,846 | 11.4 | 336 | 3.4 | 2,147 | 16.5 |
| 무선전화기 | 6,672 | 8.0 | 449 | △11.6 | 2,960 | 31.1 |
| 무선호출기 | 1,657 | 45.6 | 50 | 29.2 | 1,065 | 30.4 |
| 트랜시버 | 975 | 2.3 | 80 | 4.5 | 318 | △7.6 |
| 리모컨 | 842 | 17.3 | 72 | 0.7 | 177 | 8.3 |
| 경보신호기 | 3,074 | 125.7 | 333 | 146.7 | 382 | 20.2 |
| 자동판매기 | 592 | △18.0 | 6 | △7.7 | 542 | △19.6 |
| 컴퓨터본체 | 11,616 | 7.9 | 159 | △28.9 | 10,678 | 27.4 |
| F D D | 981 | 11.0 | 25 | 275.5 | 740 | 22.5 |
| H D D | 2,364 | 0.2 | 180 | △8.2 | 990 | 48.4 |
| 프린터 | 4,514 | 16.8 | 157 | 134.8 | 3,454 | 13.3 |
| 단말기 및 모니터 | 34,815 | 27.6 | 3,537 | 13.5 | 4,159 | 28.5 |
| 키입력장치 | 499 | △21.8 | 38 | △10.5 | 167 | △31.3 |
|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 8,458 | 28.0 | 1,026 | 34.8 | 223 | 8.8 |
| 계측기기 | 1,453 | △7.6 | 110 | △25.6 | 442 | 5.9 |
| 기 타 | 22,884 | - | 1,545 | - | 5,899 | - |

주 : 증감율은 전년대비임(단위 : %)

지난해 산업용기기는 수출이 전년대비 9.6% 증가한 84억불로 나타났고 국내시판은 4조2천6백억원을 기록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생산은 16.7% 증가한 11조7천억원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컴퓨터본체가 수출은 전년대비 28.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국내시판은 27.4%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인터넷 등 PC 통신의 확산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FDD, 프린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도 호조를 보여 각각 275.6%, 134.8%, 1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는 수출이 전년대비 11.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국내시판은 젊은층의 수요증가와 새로운 PCS사업자의 본격적인 업무 시작으로 전년동기비 3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

다. 또한 무선호출기도 수출 및 시판이 전년대비 각각 29.2%, 30.4%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유선전화기는 수출 및 국내시판이 이미 보급 포화상태에 있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자동판매기도 수출 및 국내 시판이 각각 7.7% 및 19.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트랜시버는 수출이 전년대비 4.5%의 신장율을 보인 반면 국내시판은 7.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수출과는 대조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산업용기기는 최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의 확산으로 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어 수출 및 국내시판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가정용기기

| 구 분 | 생산(억원) | | 수출(백만불) | | 시판(억원) | |
|-------|---------|-------|---------|-------|--------|-------|
|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 가정용기기 | 109,892 | 2.7 | 7,836 | △0.3 | 39,864 | △4.9 |
| C-TV | 29,588 | 18.2 | 2,110 | 16.1 | 9,263 | 2.0 |
| V C R | 15,583 | △4.7 | 1,195 | △20.3 | 3,388 | △15.0 |
| 음향기기 | 19,043 | △16.5 | 1,661 | △16.2 | 5,901 | △22.3 |
| 냉 장 고 | 11,919 | △1.2 | 494 | 21.4 | 7,224 | △11.1 |
| 세 탁 기 | 8,761 | 7.0 | 274 | 20.9 | 6,006 | 7.9 |
| 에 어 컨 | 5,258 | 50.9 | 331 | 8.6 | 2,584 | 128.5 |
| 전자렌지 | 7,505 | △6.8 | 772 | 0.4 | 1,244 | △12.7 |
| 선 풍 기 | 983 | 10.2 | 12 | 84.1 | 842 | 1.3 |
| 게 임 기 | 804 | 59.5 | 66 | 132.2 | 262 | △31.9 |
| 기 타 | 10,448 | - | 921 | - | 3,150 | - |

주 : 증감율은 전년대비임(단위 : %)

'96년 가정용기기의 수급동향은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78억3천6백만불로 나타났으며 국내시판도 전년대비 4.9%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3조9천8백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전년대비 2.7%의 증가율을 보여 가정용 제품의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는 C-TV가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수출이 전년 대비 16.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시판은 보급 포화로 2.0%의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VCR은 수출 및 시판이 전년대비 각각 20.3%, 15.0%의 큰폭 마이너스 성장으로 부진함을 보였다.

음향기기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전년대비 16.2%의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국내시판은 멀티미디어 제품의 보급 확산으로 순수한 음향기기

의 선호도가 낮아 전년대비 22.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밖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21.4%, 20.9%,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시판 또한 에어컨이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신장율을 나타냈고 세탁기는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자렌지는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7억7천만불로 나타났으나 국내시판은 12.7%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용기기의 수출 및 국내시판이 저조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보급이 포화상태에 있고 수출은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이며 국내시판은 최근 컴퓨터 등 고가의 정보화기기 구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전제품의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반도체

| 구 분 | 생산(억원) | | 수출(백만불) | | 시판(억원) | |
|-------|---------|-------|---------|-------|--------|-------|
|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 반 도 체 | 160,378 | △16.1 | 17,842 | △19.3 | 6,440 | △14.1 |
| 집적회로 | 146,532 | △18.1 | 16,766 | △20.8 | 5,233 | △18.5 |
| 트랜지스터 | 5,229 | 7.1 | 362 | △0.1 | 700 | 25.9 |
| 다이오드 | 1,735 | 1.5 | 191 | △0.3 | 51 | △3.8 |
| 기 타 | 6,882 | — | 523 | — | 456 | — |

주: 증감율은 전년대비임(단위: %)

금년초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19.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국내시판도 14.1%의 저성장에 머물러 생산은 전년대비 16.1%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97년에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메모리 분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

고 있는 우리 업계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분야로의 구조조정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업계는 64M DRAM의 양산체제를 서두르고 있으며 '96년 세계 최초의 1G DRAM의 개발은 세계 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일반부품

| 구 분 | 생산(억원) | | 수출(백만불) | | 시판(억원) | |
|-------|---------|-------|---------|-------|--------|-------|
|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96 | 증감율 |
| 일반부품 | 106,033 | 14.5 | 7,145 | 20.1 | 16,814 | △3.0 |
| 브라운관 | 35,413 | 28.1 | 2,232 | 29.0 | 2,950 | 7.4 |
| 저 항 기 | 1,904 | △0.7 | 72 | △2.3 | 489 | 19.0 |
| 변 성 기 | 2,184 | 15.5 | 64 | 24.4 | 829 | △1.2 |
| 축 전 기 | 7,485 | 0.1 | 291 | 2.4 | 1,388 | △1.0 |
| 스 위 치 | 3,020 | △10.5 | 76 | △4.3 | 1,834 | △17.1 |
| P C B | 9,031 | 6.1 | 423 | 9.5 | 1,388 | △6.8 |
| 튜 너 | 3,031 | 1.3 | 258 | 13.1 | 115 | △29.4 |
| 자기헤드 | 5,799 | 6.2 | 453 | 6.6 | 407 | △2.6 |
| 자기테이프 | 10,479 | 13.7 | 1,074 | 8.7 | 1,441 | 25.9 |
| 건 전 지 | 965 | △10.3 | 19 | △8.6 | 785 | △10.2 |
| 축 전 지 | 2,671 | 7.3 | 288 | 9.2 | 572 | 5.2 |
| 스 피 커 | 3,045 | △11.1 | 231 | △11.6 | 779 | △29.7 |
| 소형모터 | 3,178 | △4.2 | 172 | 45.9 | 1,023 | △35.1 |
| L C D | 3,531 | 82.9 | 281 | 99.3 | 350 | 28.2 |
| 영구자석 | 2,311 | 13.3 | 78 | 10.6 | 563 | △1.7 |
| 기 타 | 11,986 | — | 1,133 | — | 1,901 | — |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부품의 '96년도 수급동향은 수출이 20.1% 증가한 반면 국내시판은 3.0%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생산은 14.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여 10조6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브라운관의 수출 및 국내시판이 각각 전년대비 29.0%, 7.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세트제품의 대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노트북PC용 10.4인치 및 12.1인치 TFT-LCD가 국산제품으로 대체되고 최근에는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에도 국산 STN-LCD의 탑재가 증가되고 수출 또한 큰폭의 증가율을 보여 LCD의 수출 및 국내시판이 각각 전년대비 99.3%, 28.2%의 높은 신장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형모터, 변성기, 튜너 등의 수출이 호조

를 보여 전년대비 각각 45.9% 24.4%, 13.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기테이프도 국내시판이 2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도 8.7%의 견조한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스위치, 건전지, 스피커 등은 경쟁국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열위로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4.3%, 8.6%, 1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국내시판 또한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기전였으며 자기헤드는 수출이 전년대비 6.6%의 견조한 성장을 보였으나 국내시판은 오디오, 컴퓨터 등의 경기 부진으로 전년대비 2.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일반부품의 경기는 브라운관 LCD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부품의 수요처인 세트제품의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전자·통신업체 R&D투자

올해 주요기업들의 R&D 투자계획이 지난해보다 23.9% 증가한 7조3,59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최근 3억원 이상 투자기업 468개를 대상으로 올해 R&D 투자 동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액 7조3,590억원 중 전자·통신장비 업종이 3조5,864억원으로 48.7%를 차지했고 기타 운송장비(2조417억원·27.7%), 1차금속(3,328억원·4.5%) 등으로 나타났

다. 투자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운송장비업이 전년대비 40.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통신장비는 24%, 식음료는 20.5%, 전기기계는 16.6%, 기계장치는 16.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정제(-17.9%), 건설업(-9.7%)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R&D 투자비(잠정치)는 총 5조9,389억원으로 전년대비 16.9

%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투자비 증가율은 지난해 초 전망치(32.9% 증가)의 약 절반으로 지난 90년 이후 9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인 24.7%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한편 산기협은 이번 조사에서 올해 R&D 투자증가율이 23.7%로 조사됐으나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실제 투자증가는 지난해보다도 둔화한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투자위축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